전통한지산업에 고부가가치를 더하다

전주시, 전통계승 22 · 산업화 10개 전략 추진… 문화재 복원 · 고지도 등 수요처 집중 발굴

전주시가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보존·계승함과 동시에 산업화·세계화를 이뤄내 문화가 시민들의 먹거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시는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우수한 한지 샘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 생산에서부터 생산시설에 이르기까지 한지 생산이 지속가능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가치가 단순히 전주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을 통해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통한지산업을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주시는 대표산업인 전통한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박차를 가해왔다.

이를 위해 한지산업 전통계승과 산업화를 위한 한지산업 로드맵 22대 전략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전통계승 로드맵에는 한지장인 지정, 후계자양성, 잠재 초기장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한지산업진흥법제화, 닥인프라 구축, 전통한지 제조기반 조성, K-Paper 도시프로젝트, 전통한지제조기술 구축, 전통한지 품질인증제, 전통한지수매제도, 장인·작가 콜라보사업기반 조성, 문화재 복원시스템 구축 등 12개 전략이 포함됐다.

또한 산업화 로드맵으로는 청년고용정책, 창업지원 프로젝트, K-Paper 스타기업육성, 산업화 제조기반 조성, R&D 시스템구축, 한지산업군 솔루션, 블루슈머 제품군 도출, 국내외 마케팅 시스템 구축, 타산업군 연계시스템 구축, 기업간 제휴시스템 구축 등 10개 전략이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국내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인 흑석골 일대에 오는 2019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입해 전통한지의 복원과 생산, 역사적 유물·유적의 전시 및 교육의 장소를 아우르는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한지 산업화·세계화 '착착'

시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내외 수요 시장을 넓히기 위해 기록문화재 등 문화재 복원용 한지 수요처를 집중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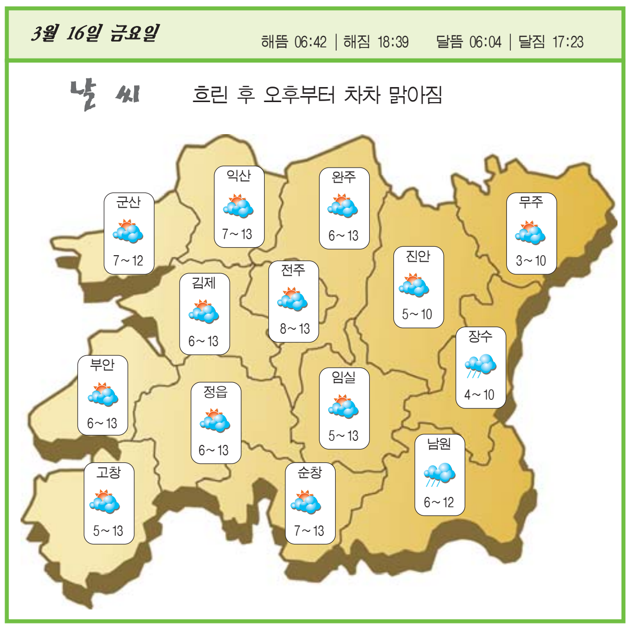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국제연합(UN)전문기구인 유네스코와는 전주한지를 활용한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나서기로 하는 LOI(의향서)를 체결, 전주한지를 활용한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 재외공관 한지 리모델링 사업 전개 등 한지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해 11월 교황청에 소장된 '113년 전 고종황제가 교황에게 보낸 편지' 기록물을 전주한지로 원본과 똑같이 만든 복본을 들고 바티칸을 직접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한 것은 전주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여기에 전주전통한지로 제작한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전주한지 고지도를 삽입하는 등 매년 전주한지 교과서 보급에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원불교 중요 고서 초기경전을 전주전통한지로 복본해 전달했다.

지난 달에는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국내 4대 종교와 향후 고서 복본사업과 출판사업, 행정용지 제작 등에 전주전통한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MOU도 체결했다.

/채규남기자



도서 상호대차 '옴書(서)감書(서)' 시행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가 시민들이 멀리 떨어진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도서를 가까운 시립도서관이나 공립작은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는 도서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이 없을 경우 11개 시립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가능한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상호대차 서비스 '옴書(서)감書(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전주시 '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주시립도서관 11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27개관을 포함한 38개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 상호대차 신청 버튼을 누른 후 수령 받을 도서관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가능권수는 1인당 3권이며 도서관 운영시간 내 방문 시 2일 내(주말, 휴관일 제외) 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드림스타트, 책이랑 놀아요 오감만족 방문미술 실시

전주시는 독서·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을 돕는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이달부터 드림아동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인 '책이랑 놀아요'와 '오감만족 방문미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책이랑 놀아요'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화구연 전문강사가 주1회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된다.

특히 전문강사들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들에게 글자 익히기와 재미있게 말하기 등을 함께 지도해 아동의 언어·인지능력을 발달시키고 즐겁게 책과 진해질 수 있는 동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오감만족 방문미술'은 전문 미술지도강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아동들과 함께 퍼포먼스 미술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표현과 정서적 발달,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우수인재 육성 위해 써주세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5일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3만원

전국 평균 27.1만원의 74.9% 수준…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적어

도내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27만1천원의 74.9%에 불과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보다 사교육비가 적은 곳은 전남(15만7000원), 충남(18만8000원), 충북(18만9000원), 강원(20만2000원) 등 4곳 뿐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8만8000원, 중학교 25만3000원, 고등학교 18만5000원(일반고 21만9000원)이다.

또한, 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3.8%로 전국 평균 70.5%에 비해 6.7%p 낮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75.8%, 중학교 62.8%, 일반계고 47.3% 순으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이상민 기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클린홍보

완산구,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대상 시범 운영

전주시 완산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와 전통시장 등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서 '쓰레기 없는 우리동네 만들기 클린홍보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산구는 우선 상반기 중 불법 쓰레기 적치가 많은 완산동과 노송동, 중화산2동,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 주택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클린홍보단을 시범 운영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한 후 하반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클린홍보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2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나 완산구 자원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클린홍보단으로 위촉된 단원에게는 위촉장과 클린홍보단원증이 발급되고 어깨띠와 홍보전단지, 청소도구 등을 지원 받는다.

홍보단은 시범운영지역 내 취약지역 주변을 가가호호 방문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을 홍보,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또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클린홍보단 우수활동자에게는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클린홍보단 사업을 통해 주민이 이웃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로 주민 공감을 이끌어내 쓰레기 배출 의식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클린홍보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